

민주당 텃밭·당내 경선이 곧 본선 시장·단체장 공천 경쟁 치열할 듯

광주시장·구청장 관전 포인트

복당 인사들 선거 출마 여부도 변수
시장·4개 구청장 재선 성공 최대 관심
대선 결과 따라 입지자 희비 갈릴수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4개월여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대선(3월9일)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 하고,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대선에 집중하느라 과열 양상은 보이지 않으면서 과거 지방선거에 비해 분위기는 좀 차분 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해들어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대선 운동과 함께 자신의 입지 넓히기와 조직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물밑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에서는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대선 결과 등도 변수로 꼽히지만,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데다 여전히 지지세가 높은 만큼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들 간 치열한 공천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대서면 방침에 따라 복당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인사들의 선거 출마 여부와 이에 따른 선거 구도의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광주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중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제외한 4명의 구청장들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로 현역 프리미엄 등이 강점이다. 하지만, 4년 전 당내 경선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3선 국회의원의 정치적 경륜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쌓은 국정경험을 토대로 이 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종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이 시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뒷서거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에는 이 시장과 강 전 수석을 비롯, 정준호 변호사와 김혜정 남부대 초빙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외당에서는 장연주 시의원,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후보가 표발갈이를 하고 있다.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임택 현 청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환 전 동구청장과 전선기 전 광주시의원, 강신기 전 광주시 기초실장 등이 물밑에서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임 청장은 그동안 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과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만 8명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다. 서대석 현 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도전자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기준 등을 대폭 상향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서 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서구청장 선거는 서 청장에 맞서 김보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김이강 전 광주시청 대변인, 배인수 전 서창농협조합장, 임우진 전 서구청장, 장재성·황현택 시의원 등이 도전 준비를 하고 있다.

남구청장 선거에서는 김병내 현 청장이 재선 도전에 나서고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강창용 시민의힘 공동대표, 박기수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비서진 출신인 김 청장은 남구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879억원의 백운광장 뉴딜사업 공모 선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선 시의원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앞세운 김 의장이 주민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고, 강 대표는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박기수 시장은 남구지원봉사센터 이사장, 남구문화예술회관장, 남구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지내며 남구를 잘 아는 인물로 꼽히면서 당내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문인 청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 조호권·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



지난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6월 1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제2 투표소가 설치된 큰별초등학교에서 유권자들이 줄지어 투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출신과 안평한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문 청장은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관록을 통해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총 415회에 달하는 수상과 1589억원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과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북구청장 선거에 도전한 경력을 갖고 있는 만큼 '다크 호스'로 꼽히며, 안 대표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사실상 정치 신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산구청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광산구청장 민주당 경선 후보로는 김익구·김학실 광주시의원들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최치현 전 구보훈처 정책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청장에게 경선에서 패한 윤남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이 최근 사퇴하고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 치열한 당내 경선 경쟁이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불출마 선언·3선 출마 제한·재판 22곳 중 단체장 절반 물갈이 전망

전남지사·시장·군수 관전 포인트

정치신인 등 후보 난립, 수싸움 치열
일괄 복당자 두고 파열음 가능성
민주당 석권 여부도 최대 관심사

대통령 선거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판세 분석이 어려운 박빙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유권자 관심은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쏠린 모습이지만, 대선 바람이 채 그치기도 전인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만 보더라도 절반

권에서는 시장·군수 1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근거로는 현역 시장·군수 일부의 불출마 선언, 3선 단체장 출마 제한 그리고 지난해 말 끝난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하위 20% 대상자 공천 페널티 등을 거론한다.

화순의 경우 구충근 현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구 군수는 차기 총선 선거구 조정 등 정치지형 변화를 지켜보며 국회의원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 정현복 시장은 부동산 문제 등 잇단 의혹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3선을 마친 이동진 진도군수와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에 따른 물갈이 대상자도 3명에 이른다. 하위 20%에 든 시장·군수 3명은 공천 과정에서 20% 감산이 이뤄지는 탓에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위 20% 단체장 공표가 이뤄지지 않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보가 새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용퇴 또는 페널티와 수모를 감수하고 재도전에 나서는 길일 것이다.

검정 수사와 재판 결과 또한 현역들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 이상의 함평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등 3명은 각각 가족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허석 순천시장의 경우 사기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역 단체장 입지가 좁아지면서 반대로 정치신인들 운신의 폭은 넓어지는 모습이다. 조직력과 인지도 등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현역 시장·군수 상당수가 자의 반, 타의 반 선거전에 나서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희비가 갈릴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전남 선거전에서 공을 세운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당 조직과 '이재명 바람'을 타고 몸값이 오르고, 반면 이재명 후보 패배 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후보의 승패와 관계없이 텃밭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 선거, 22개 기초단체장 선거를 석권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박빙 구도로 치러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당 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부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주도로 예비경선을 예고하는 등 줄 세우기 논란이 일었으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판세가 이어지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운동 외에 지역구 지방선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중앙선대위 차원의 경고가 내려지면서 논란은 금세 수그러들었다.

대선 승리를 명분 삼아 탈당자 일괄 복당을 허용한 이른바 민주당의 대서면을 두고도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남 22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수장이 바뀔 것으로 관측되면서 선거구마다 정치신인과 기성 정치인 등 후보자가 난립한 상황"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입지자들 희비가 바뀌고 연초 진행된 민주당의 당내 대서면으로 복잡하게 된 인사들의 페널티 정도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큰 잡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